

겨울의 문턱에서

이 겨울엔

설령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기를!

이 겨울엔

설령 곤고한 처지에

이르게 될지라도

오래 인내하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이 겨울엔

설령 억울한 입장을

만나게 될지라도

용서로 보듬고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이 겨울엔

설령 육신은 많이 갈하고

추울지라도

영혼만은 흡족하고 따뜻할 수 있기를!

이 겨울엔

설령 원치 않은 이별을

당케 될지라도

조금도 후회 없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오 정 방

<종교컬럼>

조영석 목사
늘푸른 한인교회 담임



장인정신



스위스 하면 아름다운 알프스의 풍경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계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시계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세계 테마여행 낭만설국 스위스”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네바 외곽의 시계장인 장 카제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2012년 이었는데 그 당시 연세가 83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적인 디자인과 독창적인 기술로 유명한데 그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계는 평생토록 한 번도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시계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장 카제씨는 아직도 하루에 7시간 정도를 그의 공방에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시간 동안 기계를 돌려 쇠를 깎아 만드는 것이 작은 나사 하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을 붙들고 다시 연구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 하나 만드는데 보통 4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작은 시계는 일년에 8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는 “시계는 상업이 아니라 예술이다 즉 작품이다”라는 믿고 하나의 시계에라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전자시계, 조각 시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시계에 도전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나의 시계를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시계 만들기를 결코 멈출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시계거장이지만 작고 소박한 공방 작업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시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에서 겸손함과 함께 깊은 장인정신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장인정신은 국어 사전에 보면 “한 가지 기술에 통달할 만큼 오랫동안 전념하고 작은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정신” 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살아야 할 정신으로는 개혁정신, 도전정신, 희생정신, 쓰러져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오투기와 같은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인정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토기장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우리 사람을 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른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적인 종속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장인이십니다 토기를 만드는 창조해 내는 공예가요 도예가요 예술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 장인의 예술가의 정신적 DNA가 내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재능을 잘 살려서 그 일들을 장인정신을 가지고 해 나간다면 참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직업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이런 장인정신을 살릴 수 있는 자신의 재능에 맞는 일을 잘 찾아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을 수십 년 동안 아니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나가는 사람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창조적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도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인정신을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직업에서라도 숭고한 장인정신을 잘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숭고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격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치열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소중한 삶의 시간들을 보다 덜 낭비하게 되고 가치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장인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 모두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역시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다고 하면서도 아예 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복음전파의 사명 그리고 조금 해 보다가 잘 안되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복음전파. 그러나 복음전파를 위해서도 끝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시도하는 거룩한 장인정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장인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